

# 韓國塔婆의 舍利瓶樣式考

金 禧 庚

## 一、前言

塔婆를 建立하는 本來의 目的이 舍利的 奉安하기 爲함이라면 佛徒에게 舍利를 藏置하는 것은 가장 神聖하고 根本的인 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舍利具의 製作에는 온 精誠을 다하였기에, 時代의 金屬工藝의 水準을 代表할 수 있는 것이고, 信仰의 變遷 및 文化交流와 時代의 考察에도 重要な 基準이 되어왔다. 舍利具中에서도 舍利瓶과 舍利壺가 그 核心이 됨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서 佛敎의 東方諸國에 傳播된에 따라 各國에서는 造塔事業이 活潑히 이루어지고, 또한 舍利瓶을 비롯한 舍利具의 製作이 많았던 것인데 그中에서도 우리나라는 舍利瓶의 材料와 樣式에서 多樣하고 獨創的인 면도 엿보이고 있다. 既知하는 바와 같이 韓半島의 佛敎美術은 中國을 通하여 그곳에서 受容된 것이 우리에게 傳達되었고 또 우리 것으로 消化하여 日本에 傳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舍利瓶을 論함에 있어서 隣接한 中國 및 日本과의 比較도 疏忽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는다.

## 二、韓半島의 舍利瓶樣式

表에 依하여 살펴보기로 하면

表(2) ① 石塔에서의 發見이 斷然 首位를 차지하고, ② 塔種에 拘碍됨이 없다면 材料의 塔에도 藏置됨을 알 수 있다.

表1. 舍利瓶이 發見된 塔

塔名	舍利瓶의 材料	高(cm)	藏置處	時代	文獻
芬皇寺模塼塔	塔綠色유리瓶(破)		二層塔身	古新羅	古譜三, 圖鑑10, 圖錄五,
感恩寺址西三層石塔	水晶舍利瓶	瓶高3.8 蓋合高4.7	三層塔身	新羅	觀國美資一, 感恩寺
塔坪里七層石塔(中央塔)	유리製舍利瓶	蓋合高6	六層	新羅	塔資料, 杉塔, 觀國, 圖錄五
皇福寺三層石塔	綠色유리製舍利瓶(破)		二層廟蓋上	"	美術研究 156號, 古文化, 杉塔, 觀國
佛國寺三層石塔(釋迦塔)	綠色유리製舍利瓶	6.45	二層塔身	"	考美7~11, 觀國 佛國寺,
" "	木製舍利瓶	5	"	"	"
葛項寺址東三層石塔	金銅舍利瓶		基壇下	"	圖鑑2.3, 塔資料, 杉塔, 古譜, 觀國
" 西三層石塔	靑銅舍利瓶		基壇下	"	" "
松林寺五層塼塔	綠色유리製舍利瓶	6.3	二層	新羅	美資一, 震檀學報 29.30號
聞慶內化里三層石塔	銀製舍利瓶		一層	"	塔資料
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	濃綠色유리製舍利瓶	蓋合高4.1	一層塔身	"	美資七
昌寧述亭里東三層石塔	淡黃色유리製舍利瓶	3	三層塔身	"	考美 七-1, 七-2 觀國
通度寺石鐘	유리筒			"	佛敎藝術33
牙山邑內里石塔	綠色유리瓶(破)			"	圖鑑 9
安東臨河洞三層石塔	翡翠色유리製舍利瓶(破)	底徑2.6	一塔身	羅末麗初	考美 七-1
王宮里五層石塔	綠色유리製舍利瓶		一層屋蓋	羅末麗初	考美六一12



時代	瓶高(cm)		1~	2~	3~	4~	5~	6~	7~	8~	9~	不明	計
	瓶數		1.9	2.9	3.9	4.9	5.9	6.9	7.9	8.9	9.9		
新羅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3		1	3 1		1		6	14 1
					1						1		1 2
高麗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1	1					2	4
朝鮮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1									1	1 1
不明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1	1
計			1		4	1	2	4		1	1	13	27

表4. 舍利瓶高(單位cm)

※ 羅末麗初塔은 新羅에 包含함

時代	瓶數	藏置處	心礎石	基壇部	一層	二層	三層	四層	五層	六層	不明	計
新羅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2	4	3 1	2			1	1	13 1
				1							4	1 4
高麗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2				1			3
朝鮮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1	1								1 1
不明	石埴木浮不 塔塔塔層明			1								1
計			1	5	6	4	2		1	1	5	25

表5. 舍利瓶의 藏置處

時 代	道 別		慶 北	慶 南	全 南	全 北	忠 南	忠 北	江 原	京 畿	慶 州 地 方	不 明	計
	瓶 數	塔 屠 明											
新 羅	石 埵 木 浮 不	塔 屠 明	9 1	1  1		1  1	1  1	1			3		13 1 1 4 3
高 麗	石 埵 木 浮 不	塔 屠 明		1			1		1				3
朝 鮮	石 埵 木 浮 不	塔 屠 明						1		1			1 1
不 明	石 埵 木 浮 不	塔 屠 明		1									1
計			10	4		2	2	2	1	1	3		25

表 6. 舍利瓶이 發見된 塔의 道別

表〔3〕(舍利瓶의 材料)

① 유리製舍利瓶의 數가 가장 많고 다음이 水晶、銀、金、木의 차례가 된다.

② 新羅時代가 他代보다 越等하게 많다.

③ 羅代는 多樣하게 各種材料의 舍利瓶이 製作되고 高麗는 거의 없으며 朝鮮代도 法住寺木塔內에 納置된 유리瓶破片이 있으나 前代의 것으로 믿어진다.

④ 高麗、朝鮮代는 유리代身 水晶이 使用되는 듯하다.

表〔4〕(舍利瓶高)

① 3 cm ~ 6、9 cm 가 最多이고 6 cm代는 新羅時代의 有數한 塔內에서 發見된 것인데 材料上으로는 유리製이고 舍利瓶形의 完熟期에 들었을 때의 作品인 것 같다.

② 舍利瓶의 高는 10 cm 以下인 듯하다.

表〔5〕(舍利瓶의 藏置處)

① 一層과 二層에 藏置된 것이 가장 많고、七層塔인 塔坪里中央塔에서 六層에 納置한 外에는 거의 三層石塔이다.

② 高麗塔에서는 五層乃至 九層의 多層塔에서 發見되고 있다.

③ 基壇部나 그 地下에 舍利瓶을 安置하는 例는 韓國에 선極히 적고 유리瓶을 藏置하는 例는 안보인다.

④ 浮屠에서는 下石室이나 台石下에서 發見된다.

表〔6〕(舍利瓶이 發見된 塔의 道別)

新羅의 古都慶州를 中心으로 한 慶北地方 및 그 隣近地方에서의 發見이 大部分이고 高麗의 都邑地開城과 그 附近地方에서의 發見例가 없음은 注目할 만하다. 換言하면 韓半島의 中部以南地方에서만 發見된 것같이 보 여진다.

三、綜合的인 考察

表에 依한 部分的인 說明을 마치고 其他의 여러 問題를 綜合的으로 考

察해본다면, A 舍利瓶의 樣式分類

① 中頸圓腹型

舍利瓶製作의 時期로 볼때, 初期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고, 感恩寺西塔內發見의 例인데 유리製가 아니고 水晶製瓶이 다. 그 上下에 孔을 뚫은 것이 特徵이라고 할수 있는데 發見時의 從事者들은 技術上의 問題로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報告하고 있다(1). 이런 例는 釋迦塔의 木製舍利瓶에서도 上下에 孔을 뚫은 것을 보겠는데, 兩者 모두 底面의 孔에는 臺나 마개를 마련하고 있다.

② 短頸圓腹型

釋迦塔二層內에서 發見된 유리製舍利瓶이 그 例가 되겠는데 中國大陸에서 唐盛代에 製作流行된 形으로, 東洋諸國에서 佛教美術開花期의 標準型이 되어 他國에 가장 많은 影響을 준 樣式이라 하겠고 現在 梅原博士藏의 唐代舍利瓶 및 日本法隆寺木塔心礎石發見의 유리製舍利瓶 등이 保存되고 있다(2).

③ 長頸圓腹型

松林寺五層塔、王宮里五層石塔內發見 유리製舍利瓶의 例로서, 우리나라 유리舍利瓶製作의 隆盛期의 作品으로, 유리器自體의 製作技術面으로 볼때는 氣泡 등이 있어서 優秀作으로는 볼수 없을지라도 가장 韓國의 이고, 우리나라



圖 1、感恩寺西塔 水晶製舍利瓶



圖 2、感恩寺西塔 水晶製舍利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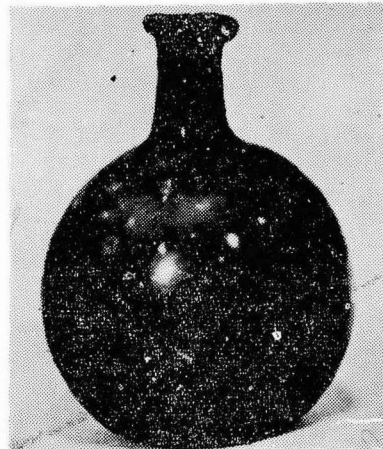


圖 3、釋迦塔 유리製舍利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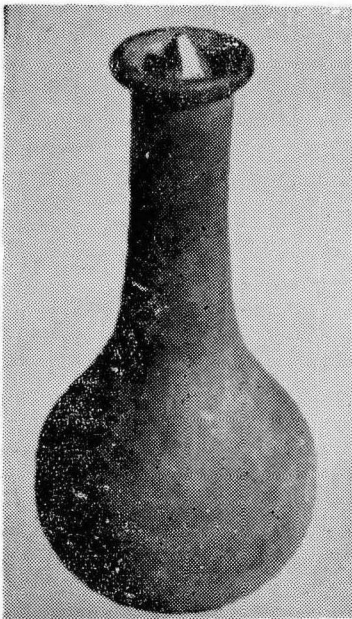


圖 4、釋迦塔 木製舍利瓶

유리製舍利瓶을 代表할 수 있을 것 같다.

④ 其他型

奉化西洞里 東三層石塔의 유리製舍利瓶과 같이 瓶腹이 그다지 크지 않고 頸이 瓶腹에 비하여 길고 굵은 편인 型等이 있다.

B、排水施設과 舍利瓶의 保全

長久한 時日 露天에 서 있는 塔婆의 内部에 藏置된 舍利瓶의 安存에 있어서 浸水는 가장 威脅科인 問題의 하나라고 하니 할 수 없다. 얕은 유리瓶, 실사 金屬製瓶이라 하더라도 風雨나 降雪로 인한 浸水에는 安全할 수 없을 것이고 皇福寺塔의 例만 보더라도 排水施設의 不充分으로 浸水되어, 瓶이 破損되어 있었고(3), 感恩寺塔의 경우, 水晶瓶인 까닭도 있지만 雨水에 對한 配慮가, 舍利具의 安全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卽 排水施設의 考慮된 塔에서는 舍利具의 安存率이 높다고 하겠다.

C、韓國의 유리製舍利瓶

유리製舍利瓶은 우리나라 舍利瓶의 主流를 이룬다고 하겠다. 芬皇寺塔에서 비롯하여 新羅統一期에 들어 많이 製作되다가 高麗以後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은 西洋에서는 紀元前부터의 유리製作技術이 八世紀에서 一三世紀사이에는 空白期가 생기고 東洋에서는 宋代末期(九六〇)~(一二九七)까지에, 그리고 日本에서는 鎌倉初期(一一八五)~(一二四九)까지에 斷絶되는 世界的趨勢에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高麗의 경우 蒙古의 長期에 걸친 侵入等의 戰亂이 잦아, 社會的 不安定한 時期의 繼續됨이 큰原因이 되었고, 한편 유리器가 其當時에는 稀貴한 高級品이고 上流階層과 密接한 關係에 있었던 事實이며, 技術의 未熟이나 材料의 入手難等이 複合的인 原因이 될 것이다. 유리製舍利瓶은 新羅古墳에서 發見되는 實用的인 유리器와 달리, 非實用的인 宗教用品이라 매우 薄弱하고 製作技術面에서 보더라도 高度의 技術이 要하지 않았고 質的으로도 最優秀作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D、舍利瓶의 蓋形

a、半球形 感恩寺址西塔의 例로 金의 細線과 細粒을 使用한 細金 細工의 技法으로 蓋頂部에는 가느다란 金線으로 만든 고리를 달고, 嵌珠까지 하는 精誠을 보이니, 統一의 英主人 文武大王을 爲한 塔다운 配慮라고 하겠다.

b、蓮蕾形 王宮里塔의 舍利瓶이며 半開의 蓮瓣을 나타낸 黃金製栓을 하고 있다.

c、寶珠形 松林寺塔의 유리製舍利瓶의 유리栓이 있고, 奉化西洞里 東三層石塔의 유리舍利瓶에도 寶珠形의 유리製가 얹혀 있는데, 그下面엔 木栓을 끼었을 鐵心이 달려 있었다(4).

d、菱形 釋迦塔의 木製舍利瓶은 金製마개를 하고, 圓底 밑에도 마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感恩寺塔의 水晶製舍利瓶이 上下에 孔이 있는 것과 同軌라 할 것이다.

e、其他 月精寺塔의 例와 같이 香木으로 된 栓으로 막는 것도 있다(5).

栓의 材料로서는 金, 유리, 香木 등이 쓰여져 있음을 알게 된다(6). E、舍利瓶의 藏置處와 瓶數

舍利瓶의 藏置處로서는 塔身內가 一般的이지만 때로는 基壇下에 納置하는 일도 있으니 葛項寺址東西石塔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들은 靑銅瓶이고 유리瓶은 아니다. 塔坪里中央塔에 있어서는 六層에 유리製舍利瓶을, 基壇下에 銀製舍利容器(瓶이라고 하지만 殘片에 의한 復原圖를 보면 그 形態가 瓶이라고 부르기에 어색한 것 같다)(7)를 藏置하였다. 釋迦塔은 二層에 유리製瓶과 木製瓶을 함께 藏置하였으나 이것 또한 塔身部이다. 따라서 유리製舍利瓶은 基壇部나 그 地下에 安置하는 예는 없고 塔內에 2個의 舍利瓶을 藏置하는 것은 거의 新羅時代이며 高麗에서는 百濟故地에 세워진 無量寺五層塔의 一例가 있을 뿐이다. 이들 例에서도 같은 材料의 瓶을 2개 藏置하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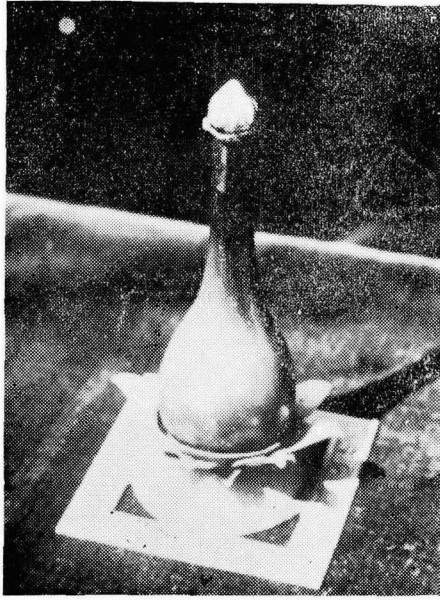


圖 6. 王宮里塔 유리製舍利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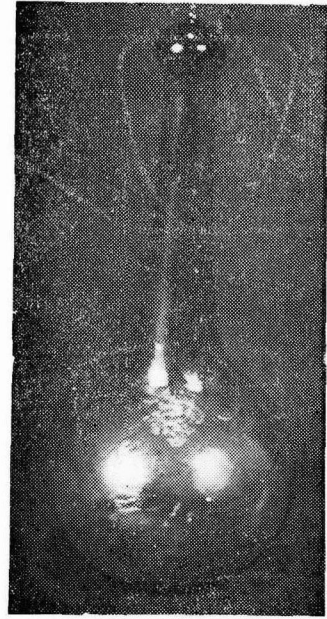


圖 5. 松林寺塔塔 유리製舍利瓶

#### 四、結語

以上에서 우리나라舍利瓶에 對하여 簡略히 考察해보았다. 舍利瓶은 實로 信仰의 所産이요 單純한 工藝品은 아니다. 千餘年동안 舍利瓶을 納入하기爲하여 여러樣式의 舍利瓶이 만들어졌는데 그基本型은 어떤것일 까하면, 臺上에 蓮華座를 마련하고 그위에 舍利瓶을 安置하고 口椽部에 蓋(栓)를 하는것이 가장 標準이 되지않을까 한다. 위에서 여러面에 言及하였으나 充分한 論議가 이루어졌다고는 할수없겠다. 앞으로의 究明을 기다리는 問題들이 있으니 即 ① 유리製舍利瓶은 거의가 綠色 내지 綠色에 가까운 色인데, 이는 敎理上의 問題일까? 또는 製作上의 技術 問題때문일까?

② 유리製舍利瓶이 高麗에 들어서 거의 자취를 감춘다 하더라도, 他材 料의 舍利瓶은 왜 前代와 같이 活潑히 製作되지 않았을까?

③ 佛敎를 國敎로 삼던 高麗代에 들어 塔婆建立의 原動力이 南韓에서 開京으로 中心이 옮겨졌건만 松京近處를 비롯하여 韓半島北部에선 舍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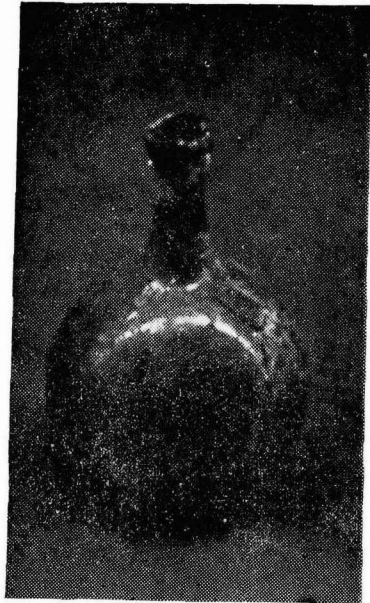


圖 7. 梅原末治藏 唐代 유리製舍利瓶

瓶의 藏置되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음은 무슨 까닭일까?

④ 유리製舍利容器的의 材料와 技術은 어디에서 어떤 經路를 거쳐 導入 되었으며 그중에 外國製는 없을까?  
 이러한 諸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上述한 바와같이 保守性이 強한 宗教美術이므로 佛敎가 傳해진 經路를 따라, 隣接 東洋各國과의 比較考察에 依하여야만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렇기 爲해서 材料, 製法, 色, 形態, 敎理等을 宗教的, 科學的, 美術史的인 側面에서 多角的인 研究가 進行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第21回 全國歷史學大會考古美術部에서 要旨發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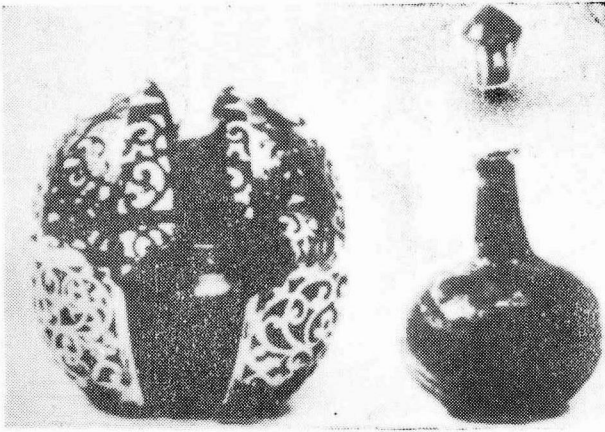


圖 8. 日本 法隆寺木塔 유리製舍利瓶

註

- ① 金載元 尹武炳·感恩寺 七六
- ② 由水常雄·棚橋淳二·東洋のガラス 九六
- ③ 梅原末治·韓國 慶州皇福寺塔 發見의 舍利容器(美術研究一五六號) P. 三三
- ④ 黃壽永·奉化西洞 里東三層石塔의 舍利具(美術資料七號) P. 五
- ⑤ 洪思俊·月精寺八角九層石塔 解體復原略報(考古美術一一二號)
- ⑥ 由水 棚橋·前掲書 P. 九六 法隆寺木塔의 유리製舍利瓶의 口栓은 銀製라고 함
- ⑦ 拙編·韓國塔婆研究資料 P. 一二二 中央塔舍利藏置圖面

文獻略名表

- 圖錄五·文教部編 國寶圖錄五(石塔篇)
- 觀 國·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編 文化財大觀(國寶篇)
- 古文化·李弘植 韓國古文化論攷
- 考美三·韓國美術史學會 考古美術第三號
- 美資七·國立中央博物館 美術資料第七號
- 塔資料·拙編 韓國塔婆研究資料
- 古譜三·舊朝鮮總督府 古蹟圖譜第四冊
- 圖鑑一〇· 博物館 陳列品圖鑑 第十卷
- 南山· 慶州南山의 佛蹟
- 杉塔·杉山信三 朝鮮의 石塔 (古美術史學者)